

부활 2주일 감사성찬례

집전: 최바우로 신부 설교: 최바우로 신부 보혈조력: 정요셉
지휘: 이유니스 반주: 정모니카 선창: 김니콜라

개회예식

†입당성가 217장 다 함 께
†정심(淨心)기도 6쪽 집 전 자
†죄의고백 6쪽 다 함 께
†영광송 12쪽(A곡) 다 함 께

말씀의 전례

†본 기 도 집 전 자
부활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절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오시어 평화를 전해주시나이다. 비오니, 우리에게도 새 생명의 기운을 부어주시어 부활의 소망과 믿음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1독서 사도 4:32-35 말 은 이
성 시 시편 133편 다 함 께



- 1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 즐거울까!
○ 형제들 모두 모여 |한데| 사느니 일!
 - 2 아론의 머리에서 수염 타고 |흐르는,
○ 옷깃으로 흘러내리는 향긋한 |기름| 같구나.
 - 3 헤르몬 산에서 시온 산줄기를 |타-이고
○ 굽이굽이 내리는 |이슬| 같구나.
 - 4 그 곳은 주께서 복을 |내린|곳,
○ 그 복은 |영생|이로다.
- ◎ 영광이 |성부와| ○ 성자와 |성령| 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 그리고 영원히, |아-|멘

2독서 1요한 1:1-2:2 말 은 이
†복음환호송 말 은 이
†복음서 요한 20:19-31 말 은 이

설교 바우로 신부
니케아신경 16쪽 다 함 께
교회와 세상을 위한 기도 말 은 이

성찬의 전례

†평화의 인사 22쪽 다 함 께
†봉헌성가 377장 다 함 께
성찬기도 23쪽 1 양 식
거룩하시다 25쪽(A곡) 다 함 께
주의기도 28쪽 다 함 께
성체나눔 29쪽 다 함 께
하느님의 어린양 ... 30쪽(A곡) 다 함 께
성체성가 544장 다 함 께
†영성체후기도 77쪽 다 함 께
자비로우신 하느님, 우리가 부활의 신비를 나타내는 이 성사를 받았나이다. 비오니, 우리를 사랑의 성령으로 채우시고, 그 사랑 속에 한 마음이 되게 하시어, 부활의 기쁨을 항상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교회소식 신 자 회 장

파송예식

†축복기도 32쪽 집 전 자
†파송성가 229장 다 함 께
(†는 일어섬)

	이번 주일(4월 7일)	다음 주일(4월 14일)
1독서	조장은	윤희진
2독서	조성산	유정훈
대 도	권순호	정국진
다음주일 전례독서	사도 3:12-20 시편 4 1요한 3:1-7 루가 24:36-48	
성 가	209 508 218 361	
복 사	정선우	보혈조력 정스테반
다음주간 교회청소	<6조> 최용욱 윤희진 허예영 동소신	

(1997-2024 / 교회설립 27주년)



성공회 산본교회

St. Clare's Anglican Church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323번길 21, 청진빌딩 7층 ☎ 031-397-0443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공동체

2024년 4월 7일 부활 2주일 · 나해 · 백색

제28-14호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만나러 오십니다. 두려움에 떨며 문을 닫아건 자리로 홀연히 오시어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십니다. 이 평화의 인사가 제자들의 두려움과 상처를 아아갑니다. 평화는 두려움을 압도하는 힘입니다. 주님께서는 평화의 인사로 죽음의 기운이 넘실대는 세상을 물리치고 새로운 세상의 도래를 선포 하십니다. 이제 치욕의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로 변화되고, 고통과 두려움의 십자가는 평화의 십자가가 되어 신앙인의 승리를 이끍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이 전하는 평화의 의미가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의 평화는 단지 굴곡 없는 안정적인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앙인은 주님께 서 평화를 완성하시기 위해 먼저 이루신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고난을 겪으셨고, 죽으

셨으며,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평화는 이 과정이 빠짐없이 진행되었을 때 일어나는 신비입니다. 교회는 평화의 인사로 서로의 안부를 묻는 곳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고난의 삶을 묻고, 죽음의 세력에 끌려가는 아픈 삶을 묻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압도하며 다시 일어서는 희망도 함께 물어야 합니다. 참된 평화는 모든 의심을 물리칩니다. 토마는 평화를 전하시는 주님 앞에서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이라는 아름다운 고백으로 복된 사도직을 준비합니다. 제자의 사명은 평화의 메신저가 되어 세상에 나아가는 일입니다. 이 사명으로 죽음의 세력에 내몰리어 두려움으로 문을 꼭 닫아 건 이들에게 가서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화가 있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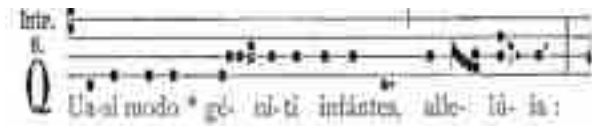
교구장 이경호(베드로) 주교 / 관할사제 최용준(바우로) 신부
신자회장 최용욱(어거스틴) / 사제회장 김운권(베네딕트) / 원로회장 한명숙(올리야나)

"부활 팔일 축제와 부활 2주일"

부활 팔일 축제(Octave of Easter)는 부활대축일을 포함하여 팔일째 되는 오늘 부활 2주일에 끝나는 교회의 축제입니다. 오늘 부활 2주일은 다양한 의미에 따른 여러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읽는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토마를 생각하면서 "토마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제자들과 달리 토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부활 팔일째 되는 날에 처음으로 만납니다. 또 팔일 축제가 시작하는 부활대축일의 '고양된'(high) 분위기에 대비하여 축제의 끝을 맺는 "차분한(low) 주일"이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부활절 이후에 사제와 성가대가 휴식과 회복의 시간을 가지며 교회는 단순한 전례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Low"라는 단어가 오늘의 복음환호송인 "겸손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자(Laudes)"에서 유래한다는 설명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또 부활밤에 세례 받은 이들이 깨끗한 존재로 다시 태어난 것을 기념하여 부활 주간 동안 백색 예복을 입고 있다가 부활 2주일에 벗었기 때문에 "백색 예복을 벗는 주일"(Dominica in albis depositis)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날은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서 보편교회의 새 가족 구성원이 된 이들을 격려하고 축하하는 날이라는 의미가 강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날 사제는 입당하면서 세례신자를 격려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갓난아이처럼(Quasi modo geniti infantes), 알렐루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구하십시오, 알렐루야,

알렐루야, 알렐루야!" (사진 참조) 이 노래의 첫 단어 '카지모도'(Quasi modo: "처럼")를 따서 오늘 부활 2주일을 "카지모도 주일"이라고도 부릅니다(빅토르 위고의 소설 [파리의 노트르담]에 등장하는 "카지모도"가 이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 입당송은 베드로전서 2:2-3("갓난아이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으로 자라나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지 않았습니까?")에 기반하여, 이제 공교회의 일원이 된 이들에게 처음 마음을 잃지 않고 구원을 향하여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라는 권고입니다. 이처럼 부활밤부터 부활 2주일까지 부활은 끊임없이 세례와 연결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온 세계가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간 외울 말씀 24

야훼만 믿고 살아라. 땅 위에서 네가 걱정 없이 먹고 살리라. (시편 37편 3절)

교회소식

■ 전례와 사목

◆ 부활절기 전례곡 안내

부활절 50일(부활주일~성령강림주일) 전례곡: A곡

◆ 부활 대심방 일정과 안내

- 4월 16일(화) ~ 5월 10일(금)

- 심방 일정을 마련하여, 사제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림

◆ 산본·안양·안산교회 연합 예배

5월 19일(주일) 오전 11시 / 늘푸른 복지관

◆ <365 성서 통독> 시작

4월 8일(월)부터 1년 동안 성서 통독을 합니다. 하루에 4장씩 구약과 신약성서를 읽습니다. 성서 통독을 하는 교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4월 교회위원회

오늘(4월 7일) 오후 1시 40분 / 어린이예배실

◆ 전교우 성서공부

오늘(4월 7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 교회학교 어린이 예배 (매월 둘째, 셋째 주일)

4월 14일(다음 주일)에 어린이 예배가 있습니다.

◆ 수요 성서공부

국회의원 선거 관계로 이번 주간에 쉽니다.

◆ 금요 기도 모임

4월 12일(금) 오후 7시에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인도하심과 영적인 평안의 시간입니다.

◆ 베다니 어머니회 & 성가대 야유회 성료

어제(4월 6일) 서울대공원에서 야유회를 하였습니다. 베다니회, 성가대, 아버지회, 어린이까지 많은 교우들이 함께 한 즐거운 나들이였습니다.

◆ 서울교구 임시 교구 의회

의안 - 서울교구장 선출
4월 13일(토) 오전 11시 / 서울주교좌성당
서울교구장 주교 선출을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일 봉헌 내역

■ 십일조 · 월정헌금 1,060,000원
김동준/이선자 김준우/조장은 이상현/최미혜
이은경 임혜지 장성환 조성산 허예영/동소신

■ 주일헌금 282,000원
고미순 권순호 김소라 김승현 백옥경 유군상
유정훈 이원주 임혜지 장성환 장재현 장태현
채희영 최순덕 황선숙 이하린

■ 부활감사헌금 4,520,000원
고미순 권순호/황선숙 기필순 김도환 무명
김동준/이선자 김준우/조장은 김홍진/김종림
류지민 류한신/이민녀 백남진/박선희 박종례
신동홍/홍종분 유군상 유정훈/김승현 유아운
유아현 이원주/이왕수 이윤식/백옥경 이은경
임광호/최숙진 정국진/이숙영 조성현/김훈나
조준행신부 지병애 차준섭신부/김승숙 최순덕
최미혜/이상현 최용욱/윤희진 한명숙 허훈제
최용준신부/백기은

■ 감사헌금 313,000원
지병애(범사)
사순절 헌금: 김준우, 박선희, 박순호, 박종례,
백옥경, 유군상, 이선자, 이윤식, 최순덕,
황선숙, 무명

■ 특별헌금 390,000원
사순절 극기헌금: 이동우, 이서현, 이주안
이윤식/백옥경, 조준행신부/이은경
이은경(아론 기금)

※ 기도해 주세요 ※

◆ 대한성공회와 서울교구를 위하여
- 4월 13일(토) 서울교구장 주교 선출을 위해

◆ 어려운 교우와 환우 교우를 위하여
강영욱 권영분 기필순 김길자 김승숙 김옥현
박종례 박순호 안병순 임광호 이성중 이연학
유군상 유정환 조준행 신부 정시원 채희발 한명숙

◆ 해외 체류
김보미 조민규 조이준 방유미 이형석 디아나
이주안 임인택

◆ 새교우(예비 신자) 이요한 전아영